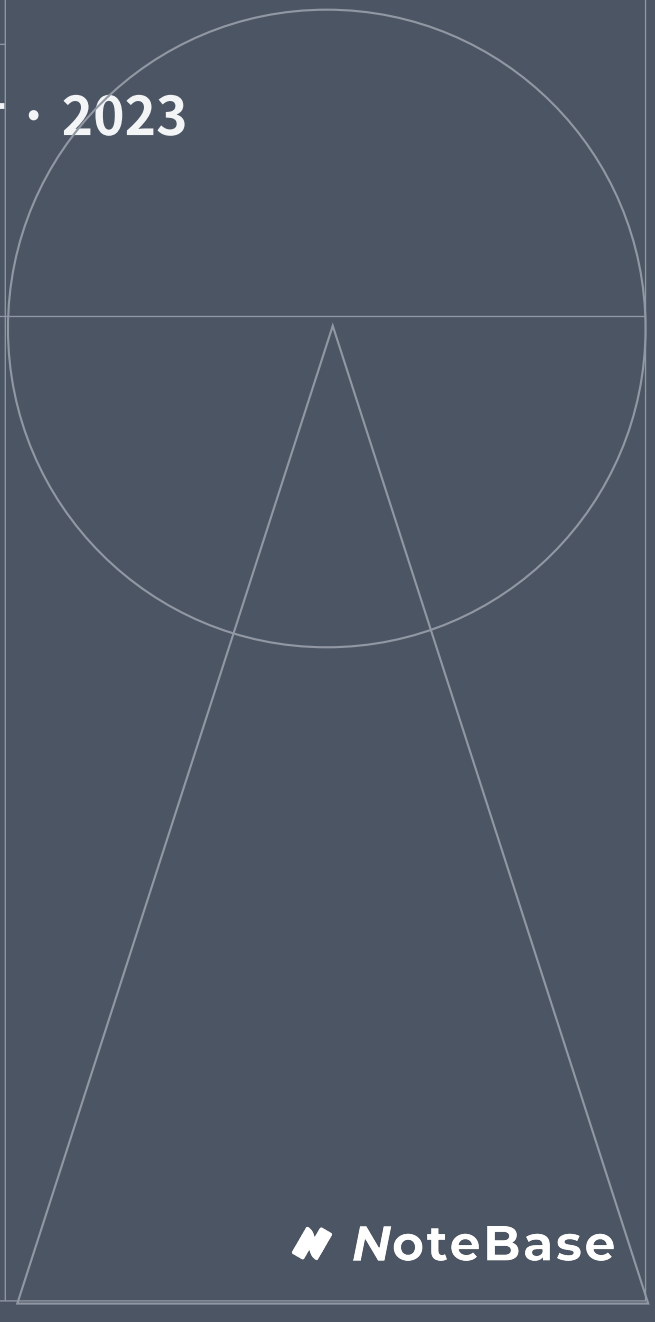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23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23

문 1. 기업집중의 형태에서 콘체른(concer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다수의 개별기업이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성을 상실한 기업집중 형태로, 지주회사가 그 예이다.

② 다수의 개별기업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기업집중의 형태로, 구속력이 가장 크며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③ 동종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협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합 형태이다.

④ 생산공정이나 판매과정에서 상호 경쟁 관계가 없는 산업 분야에 진출해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형태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업집중 형태인 콘체른, 트러스트, 카르텔, 콩글로머리트의 구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콘체른: 다수의 기업이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지배 아래 묶인 기업집중 형태이다. 키워드는 지주회사, 법적 독립 유지, 경제적 종속이다.
트러스트: 여러 기업이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모두 잃고 완전히 통합되는 기업집중 형태이다. 키워드는 완전 결합, 독립성 상실, 강한 구속력이다.
카르텔: 같은 업종 기업들이 법률적 ·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협정으로 결합하는 형태이다. 키워드는 수평적 협정, 독립성 유지이다.
콩글로머리트: 상호 관련성이 낮은 이종 산업으로 다각화하는 기업결합 형태이다. 키워드는 무관련 다각화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콘체른은 개별 기업이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지배회사에 종속되는 형태이다.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이 대표적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법률적 ·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기업집중의 형태'와 '구속력이 가장 크다'는 설명을 콘체른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동종업종', '협정', '수평적'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카르텔에 대한 설명이다. 콘체른은 협정만으로 느슨하게 묶이는 형태가 아니라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경제적 지배가 이루어진다.
④ X: 틀린 부분은 '상호 경쟁 관계가 없는 산업 분야에 진출'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콩글로머리트에 대한 설명이다. 콘체른은 무관련 다각화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기업집중 형태는 독립성 유지 여부와 결합 방식이 비슷하게 보여 혼동되기 쉽다. 특히 ②는 독립성 상실이라는 점에서 콘체른과 반대로 서술했고, ③은 협정에 의한 수평 결합이라는 카르텔의 특징을 넣어 함정을 만들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적 독립은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만 지배되면 콘체른, 법률적 · 경제적 독립을 모두 잃으면 트러스트, 독립성을 유지한 채 협정으로 묶이면 카르텔, 관련 없는 사업으로 다각화하면 콩글로머리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콘체른은 법적 독립 · 경제적 종속, 트러스트는 완전 통합, 카르텔은 협정, 콩글로머리트는 무관련 다각화이다.

NoteBase

문 2. <보기>는 인간관계론의 근간이 된 호손실험(Hawthorne research)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의 총 개수는?

<보기>
ㄱ. 호손은 실험을 주도한 사회학자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ㄴ. 실험의 목적은 과학적 관리법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ㄷ. 공장 내의 조명도가 적절할 때 생산능률이 증대함을 확인하였다.
ㄹ. 종업원 상호 간의 비공식화된 조직이 작업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① 1
② 2
③ 3
④ 4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호손실험의 명칭 유래, 초기 실험 목적, 인간관계론적 결론을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호손실험은 웨스턴일렉트릭의 호손 공장에서 수행된 연구로, 물리적 작업조건만이 아니라 집단 규범과 비공식조직 같은 사회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드러낸 실험이다.
과학적 관리법은 작업의 표준화와 물리적 능률 향상에 초점을 둔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적 관심, 집단 분위기, 비공식조직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옳은 설명이 1개라는 판단은 틀리다. ㄴ은 호손실험의 출발점이 물리적 작업조건과 능률의 관계, 곧 과학적 관리식 발상을 검증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옳고, ㄹ도 비공식조직이 작업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발견이므로 옳다. 따라서 실제 총개수는 1개가 아니라 2개이다.
2번 O: ㄱ은 '실험을 주도한 사회학자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호손은 실험 장소인 웨스턴일렉트릭의 호손 공장명에서 유래했다. ㄴ은 초기 실험 목적을 설명하므로 옳다. ㄷ은 조명도가 적절하면 생산율이 증대한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명 변화만으로 생산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냈으므로 틀리다. ㄹ은 종업원 간 비공식조직이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 ㄹ의 2개이다.
3번 X: 옳은 설명이 3개라는 판단은 ㄷ까지 옳다고 본 경우인데, ㄷ이 틀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조명도가 적절할 때 생산율이 증대함을 확인하였다'이다. 실제로는 조명 자체보다 관찰받는 상황, 집단 분위기, 비공식조직 등의 사회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4번 X: 옳은 설명이 4개라는 판단은 ㄱ과 ㄷ까지 모두 옳다고 본 경우인데, 두 설명 모두 틀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ㄱ의 틀린 표현은 '사회학자의 이름'이고, 실제로는 공장명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올바른 개수는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오답 포인트

호손실험을 조명실험 결과로만 기억하면 ㄷ을 옳다고 보기 쉽고, 호손이라는 명칭을 인명으로 오인하면 ㄱ까지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호손실험 문제는 명칭의 유래, 초기 문제의식, 최종 결론을 분리해서 본다. 명칭은 공장명, 출발점은 물리적 조건 검증, 결론은 비공식조직과 인간적 요인의 중요성이다.

암기 포인트

호손실험은 공장명에서 시작했고, 결론은 조명보다 인간관계와 비공식조직이다.

NoteBase

문 3.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 아닌 것은?

① 성취동기이론

② 2요인이론

③ 기대이론

④ ERG이론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기부여 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이론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욕구나 동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과정이론은 사람이 어떤 기대, 판단, 보상 인식을 거쳐 행동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성취동기이론은 성취, 권력, 친화 욕구를 중심으로 동기를 설명하는 내용이론이다.
2요인이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구분하여 직무만족과 불만족의 원천을 설명하는 내용이론이다.
ERG이론은 존재, 관계, 성장 욕구로 욕구를 재구성한 내용이론이다.
기대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사이의 기대와 유의성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성취동기이론은 맥클리랜드의 욕구이론으로, 사람의 주요 욕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므로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② O 2요인이론은 허즈버그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구분하여 동기의 원천을 설명한 이론이므로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③ X 기대이론은 개인이 노력하면 성과가 나고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기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틀린 표현은 '내용이론'에 포함된다고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과정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④ O ERG이론은 알더퍼가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으로 구분한 욕구이론이므로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기대이론도 동기부여를 설명한다는 점 때문에 내용이론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구분 기준은 동기의 대상이 아니라 동기가 형성되는 설명 방식이므로, 욕구의 종류를 말하면 내용이론이고 기대와 보상 판단 과정을 말하면 과정이론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이 욕구의 종류, 결핍, 만족 요인처럼 동기의 내용 자체를 설명하면 내용이론으로 판단한다. 기대, 공정성, 목표설정처럼 행동이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면 과정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맥클리랜드, 허즈버그, 알더퍼는 내용이론이고 브룸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이다.

NoteBase

문 4. 마케팅 가격결정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가가산가격결정법(cost-plus pricing)은 가격변동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② 경쟁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신제품에 대한 조기수용자층에 대해서는 스키밍 가격(market-skimming pricing)을 사용한다.

③ 어떤 제품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그 상품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품 등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가격관리방식은 종속제품에 대한 가격결정(captive-product pricing)이다.

④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거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할 경우에는 시장침투가격(market-penetration pricing)을 사용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가가산가격결정법, 스키밍 가격, 종속제품 가격결정, 시장침투가격의 적용 상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가가산가격결정법은 원가에 일정 마진을 더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스키밍 가격은 신제품 출시 초기에 높은 가격으로 시작해 초기수용자층에서 이익을 먼저 회수하는 방식이다.
종속제품 가격결정은 본제품은 낮게 팔고 소모품이나 부품은 높게 파는 방식이다.
시장침투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수요를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넓히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원가가산가격결정법은 원가를 기준으로 일정 이윤을 붙여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거나 기업이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과 맞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가격변동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올바르게는 "원가 파악이 비교적 쉽고 원가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에 가깝다.
② O: 경쟁자의 진입이 쉽지 않고 초기수용자층이 존재하면 신제품에 높은 가격을 먼저 책정하는 스키밍 가격이 적합하다. 초기 고가 책정으로 혁신수용층에서 먼저 이익을 회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본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한 뒤 그 제품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은 종속제품 가격결정의 전형적 설명이다. 면도기와 면도날, 프린터와 잉크의 관계처럼 본체와 소모품의 결합에서 자주 쓰인다.
④ O: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면 낮은 가격으로 대량판매를 노리는 시장침투가격이 적합하다.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진술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은 원가가산가격결정법을 시장상황 의존적 가격결정처럼 바꿔 놓은 선지이다. 원가 기준 방식인지, 수요·경쟁 반응에 민감한 방식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1번을 맞는 문장처럼 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전략 문제는 먼저 가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부터 본다. 원가에 마진을 더하면 원가가산, 초기 고가로 시작하면 스키밍, 본제품 저가와 소모품 고가의 결합이면 종속제품,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넓히면 시장침투가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가가산은 원가+마진, 스키밍은 초기 고가, 종속제품은 본체 저가·소모품 고가, 시장침투는 저가 대량판매이다.

NoteBase

문 5.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기업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인기업에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상표 및 기타 기업운영방식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해 주는 유통형태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해당하는 유통경로는?

① 수평적 마케팅시스템

② 기업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

③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

④ 관리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의 하위 유형 중 계약형에 속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평적 마케팅시스템은 같은 유통단계의 기업들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동일 단계 협력이다.
기업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등의 여러 단계를 한 기업이 소유로 통합한 방식이다. 키워드는 소유 통합이다.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독립된 기업들이 계약으로 결합하여 공동으로 유통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계약 결합이며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이다.
관리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소유나 계약 없이도 한 유통구성원의 규모와 영향력으로 다른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영향력 조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수평적 마케팅시스템은 같은 수준의 유통경로 구성원끼리 협력하는 형태이다. 이 문제의 프랜차이즈는 본부와 가맹점처럼 서로 다른 유통단계가 계약으로 연결되므로 수평적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수평적"이다. 올바르게는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이다.
② X: 기업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유통단계를 한 기업이 소유하는 형태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법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계약으로 결합하므로 기업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기업형"이다. 올바르게는 "독립된 기업 간 계약형"이다.
③ O: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상표, 제품,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공하고 가맹점은 계약에 따라 이를 사용한다. 따라서 독립된 기업들이 계약으로 결합한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에 해당한다.
④ X: 관리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지배적 제조업자나 대형 소매상의 시장지배력으로 유통경로가 조정되는 형태이다. 프랜차이즈는 영향력만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계약관계로 운영되므로 관리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관리형"이다. 올바르게는 "계약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직적 마케팅시스템 안에서도 기업형, 계약형, 관리형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제는 프랜차이즈라는 익숙한 사례를 제시해 놓고 ②의 소유 통합과 ④의 영향력 조정을 섞어 헷갈리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통경로 문제는 먼저 결합 방식이 소유인지, 계약인지, 영향력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프랜차이즈가 보이면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핵심이므로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프랜차이즈는 계약, 기업형은 소유, 관리형은 영향력이다.

NoteBase

문 6. 마케팅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군집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은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들로 나누고,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② 체계적오차가 작으면 신뢰성(reliability)이 높고, 비체계적 오차가 작으면 타당성(validity)이 높다.

③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설문조사는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며, 탐색조사에 적합한 자료수집방법이다.

④ 기업의 매출액과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연령 및 소득은 비율척도에 해당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본추출법, 신뢰성과 타당성의 의미, 탐색조사에 적합한 자료수집방법, 측정척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군집표본추출법은 모집단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눈 뒤 일부 군집을 표본으로 뽑는 방법이다. 층화표본추출법은 모집단을 성격이 비슷한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신뢰성은 반복 측정에서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이므로 비체계적오차가 작을수록 높다. 타당성은 의도한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이므로 체계적오차가 작을수록 높다.
FGI는 소수 응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정성조사로서 탐색조사에 적합하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문항으로 많은 응답자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기술조사에 주로 쓰인다.
비율척도는 절대적 영점이 있어 차이뿐 아니라 비율 비교도 가능한 척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군집표본추출법"이다. 제시된 설명처럼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층화표본추출법이다. 군집표본추출법은 각 군집 자체를 표본단위로 삼아 일부 군집을 뽑는다.
2번: X. 틀린 표현은 "체계적오차가 작으면 신뢰성이 높고, 비체계적오차가 작으면 타당성이 높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비체계적오차가 작을수록 신뢰성이 높고, 체계적오차가 작을수록 타당성이 높다.
3번: X. 틀린 표현은 "FGI와 설문조사는 ... 탐색조사에 적합한 자료수집방법이다"라는 부분이다. FGI는 1차 자료를 수집하며 탐색조사에 적합하지만, 설문조사는 1차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주로 기술조사나 가설검증에 더 적합하다. 올바르게는 "FGI는 탐색조사에 적합하고, 설문조사는 기술조사에 주로 활용된다"이다.
4번: O. 기업의 매출액, 소비자의 연령, 소득은 모두 절대적 영점이 존재하고 배수 비교가 가능하므로 비율척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은 군집표집과 층화표집의 설명을 바꿔 놓은 함정이다. 2번은 신뢰성과 타당성에 연결되는 오차 유형을 뒤집어 놓았고, 3번은 FGI의 특징을 설문조사까지 확장해 탐색조사 도구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본추출은 표본을 어디서 뽑는지부터 본다. 각 층에서 조금씩 뽑으면 층화표집이고, 군집 자체를 뽑으면 군집표집이다. 오차 문제는 비체계적오차-신뢰성, 체계적오차-타당성을 먼저 연결한 뒤 판단한다. 조사방법은 FGI는 탐색, 설문은 기술 중심인지로 구분한다. 척도는 절대적 영점과 배수 비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비율척도인지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층화는 각 층에서 추출, 군집은 군집째 추출이다. 신뢰성은 비체계적오차, 타당성은 체계적오차와 연결된다. 절대적 영점이 있으면 비율척도이다.

NoteBase

문 7. 경영관리자의 통제범위(span of control)는 경영관리자가 직접 감독하는 직원의 수이다. 최적의 통제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업이 복잡할수록 통제범위는 좁아진다.

② 책임을 위임하는 경영관리자의 능력이 우수할수록 통제범위는 넓어진다.

③ 작업자와 경영관리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많이 요구될수록 통제범위는 넓어진다.

④ 작업자의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통제범위는 넓어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제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결정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제범위는 한 관리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이다.
통제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은 업무가 단순·표준화되어 있고, 부하의 역량이 높고, 관리자의 위임 능력이 좋고, 상호조정 필요가 적은 경우이다.
통제범위가 좁아지는 방향은 업무가 복잡하고, 예외상황이 많고, 부하와의 빈번한 상호작용·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과업이 복잡할수록 관리자가 개별 부하를 더 자주 지도·조정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줄어든다.

② O
관리자의 권한위임 능력이 우수하면 세부 의사결정을 부하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 직접 감독 부담이 줄고 통제범위는 넓어진다.

③ X
작업자와 경영관리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많이 요구될수록 관리 시간과 조정 부담이 커지므로 통제범위는 좁아진다.
틀린 부분은 "많이 요구될수록 통제범위는 넓어진다"이다.
올바르게는 "많이 요구될수록 통제범위는 좁아진다"이다.

④ O
작업자의 기술수준이 높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감독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리자는 더 많은 인원을 맡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으면 관리 효율이 올라간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통제범위는 인간관계의 질이 아니라 관리자가 직접 조정해야 하는 빈도와 복잡성에 더 민감하므로, 피드백 요구가 많을수록 오히려 좁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제범위 문제는 "관리자의 직접 개입이 많이 필요한가"를 먼저 본다. 직접 개입이 많이 필요하면 좁아지고, 표준화·위임·숙련으로 자율성이 커지면 넓어진다.

암기 포인트

복잡·예외·피드백 많음은 좁은 통제범위, 단순·숙련·위임 우수는 넓은 통제범위이다.

NoteBase

문 8. 노동조합이 근로자와 조합원 자격의 관계를 근로협약에 명시하여 조합의 존립을 보장받고자 하는 숍제도(shop system)의 유형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좋으나 조합비는 납부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받는 대가로 비조합원을 위해서도 단체교섭을 맡는 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니언숍(union shop)

② 에이전시숍(agency shop)

③ 오픈숍(open shop)

④ 클로즈드숍(closed shop)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숍제도의 유형을 조합 가입 의무와 조합비 납부 의무의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클로즈드숍은 채용 단계부터 조합원만 고용하는 제도이다.
유니언숍은 채용 뒤 일정 기간 안에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에이전시숍은 조합 가입 의무는 없지만 비조합원도 조합비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오픈숍은 조합 가입 의무도 없고 조합비 납부 의무도 없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니언숍은 근로자가 입사 후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틀린 표현은 '가입하지 않아도 좋다'이다. 올바르게는 '가입 의무는 없지만 조합비는 납부한다'가 에이전시숍이다.
② O: 에이전시숍은 비조합원에게 조합 가입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조합이 단체교섭과 대표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조합비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오픈숍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근로자 자유에 맡기고 조합비 납부도 강제하지 않는 제도이다. 틀린 표현은 '조합비는 납부해야 하며'이다. 올바르게는 오픈숍에서는 조합 가입도 조합비 납부도 의무가 아니다.
④ X: 클로즈드숍은 사용자에게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틀린 표현은 '가입하지 않아도 좋으나 조합비는 납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채용 자체가 조합원에게만 열려 있는 형태가 클로즈드숍이다.

오답 포인트

유니언숍과 에이전시숍은 모두 오픈숍보다 조합 보호가 강하다는 점 때문에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유니언숍은 '가입 의무', 에이전시숍은 '비가입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이 핵심 차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숍제도 문제는 먼저 조합 가입이 강제되는지, 그다음 비가입자에게도 조합비를 부담시키는지를 순서대로 본다. 가입 강제는 없고 비용만 부담하면 에이전시숍이다.

암기 포인트

에이전시숍은 비가입 가능, 비용 부담이다. 유니언숍은 가입 의무, 오픈숍은 의무 없음, 클로즈드숍은 조합원만 채용이다.

NoteBase

문 9. Lepak과 Snell의 인적자본 아키텍처(architecture) 연구에 따라 인적자본의 가치와 독특성을 기준으로 인적자본을 구분할 때, 인적자본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자본의 가치가 높고, 독특성이 높은 경우 종업원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가 요구된다.
② 인적자본의 가치가 높고, 독특성이 낮은 경우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인력을 개발해야 한다.
③ 인적자본의 가치가 낮고, 독특성이 높은 경우 하도급이나 파견인력처럼 제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④ 인적자본의 가치가 낮고, 독특성이 낮은 경우 인적자원 구성은 조직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인적자본의 가치와 독특성의 조합에 따라 내부 육성, 외부 확보, 제휴, 순응형 관리 중 어떤 인적자원관리 방식이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치가 높고 독특성이 높으면 지식기반 고용으로 보며 조직특수적 역량이 커서 내부 육성과 몰입형 관리가 중요하다.
가치가 높고 독특성이 낮으면 직무기반 고용으로 보며 성과에는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한 일반 인력이므로 외부 노동시장에서 확보하고 생산성 중심으로 관리한다.
가치가 낮고 독특성이 높으면 내부에 고정 고용하기보다 외부 제휴나 파트너십으로 필요한 역량을 연결한다.
가치가 낮고 독특성이 낮으면 계약형·순응형 관리가 적합하며 조직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는 형태가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치와 독특성이 모두 높은 인력은 기업 경쟁우위의 핵심이므로 단순 통제보다 종업원의 몰입과 헌신을 끌어내는 관리가 필요하다. 내부 육성, 장기적 관계, 높은 투자와 연결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인력을 개발해야 한다"이다. 가치가 높지만 독특성이 낮은 인력은 기업에 중요하지만 일반 노동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인력이므로 내부 장기육성보다 외부 확보와 생산성 중심 관리가 맞다. 올바르게는 "조직 외부 노동시장에서 확보하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한다"이다.

③ O
가치는 낮지만 독특성은 높은 인력은 기업 내부에 상시 고용해 축적할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외부와의 제휴나 파트너십 형태로 활용하는 축에 가깝다. 선지의 핵심은 내부 고용보다 외부 연계를 택한다는 점이다.

④ O
가치와 독특성이 모두 낮은 인력은 계약형·순응형 관리가 일반적이다. 조직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맞추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가치가 높다는 말만 보고 모두 내부 핵심인력으로 연결하면 ②에 걸리기 쉽다. 이 이론은 가치뿐 아니라 독특성을 함께 보며, 독특성이 낮으면 외부에서 조달 가능한 일반 인력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로 전략적 중요성을 보고, 다음으로 독특성이 높은지 낮은지로 내부 육성 대상인지 외부 조달 가능한지 나눈다. 가치 높음·독특성 높음은 내부 육성, 가치 높음·독특성 낮음은 외부 확보, 가치 낮음·독특성 높음은 제휴, 가치 낮음·독특성 낮음은 순응형 관리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높고 높으면 몰입형 내부핵심, 높고 낮으면 외부확보 생산성형, 낮고 높으면 제휴형, 낮고 낮으면 순응형이다.

NoteBase

문 10. 은행 창구 직원들의 관리자와 직원들은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고, 직원들의 직무수행 절차가 잘 구조화되어 있으며, 관리자의 직위권력이 강할 때 피들러의 상황모델(Fiedler contingency model) 중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① 관계지향 리더십
② 과업지향 리더십
③ 팀지향 리더십
④ 성취지향 리더십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에서 리더-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직위권력으로 상황 호의성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리더 성향을 고르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관리자와 직원들의 관계가 좋다.
직무수행 절차가 잘 구조화되어 있다.
관리자의 직위권력이 강하다.
세 상황변수가 모두 리더에게 유리하므로 매우 호의적인 상황이다.

핵심 개념

피들러의 상황모형은 리더십 효과가 리더의 성향과 상황의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상황 호의성은 리더-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직위권력으로 결정된다.
상황이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비호의적이면 과업지향 리더십이, 중간 정도의 상황이면 관계지향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는 관계가 좋고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직위권력도 강하므로 피들러 기준에서 매우 호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스타일은 과업지향 리더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관계가 좋다는 단서만 보면 관계지향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피들러는 세 변수를 함께 본다.
이 사례는 과업구조와 직위권력까지 모두 강하므로 중간 상황이 아니라 매우 호의적인 상황이다.
틀린 표현은 "관계지향"이다. 올바르게는 "매우 호의적인 상황에서는 과업지향 리더십이 효과적이다."이다.

② O
관리자와 직원의 관계가 좋고 업무가 구조화되어 있으며 직위권력도 강하므로 상황 호의성이 매우 높다.
피들러 모형에서는 이런 매우 호의적인 상황에서 과업지향 리더십이 높은 성과를 낸다.

③ X
팀지향 리더십은 피들러 상황모형의 기본 구분이 아니다.
피들러는 리더 성향을 관계지향과 과업지향으로 구분한다.
틀린 표현은 "팀지향"이다. 올바르게는 "피들러 모형의 선택지는 관계지향 또는 과업지향으로 판단한다."이다.

④ X
성취지향 리더십은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에서 제시되는 리더 행동 유형이다.
이 문항은 피들러 상황모형을 묻고 있으므로 적용 이론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성취지향"이다. 올바르게는 "피들러 모형에서는 매우 호의적인 상황에 과업지향 리더십이 적합하다."이다.

오답 포인트

"관계가 좋다"는 표현만 보고 ①로 가기 쉽지만 피들러는 관계만이 아니라 과업구조와 직위권력까지 합쳐 상황 호의성을 본다. 또한 ③과 ④는 다른 리더십 이론의 용어를 섞어 이론 혼동을 유도한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피들러 문항은 먼저 리더-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직위권력의 세 변수를 확인한다.
셋이 모두 좋으면 매우 호의적인 상황이므로 과업지향, 중간 수준이면 관계지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피들러는 세 상황변수로 호의성을 본다.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면 과업지향, 중간이면 관계지향이다.

NoteBase

문 11. 수요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계열분석법은 정량적 수요예측 기법 중 하나로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는 수준, 추세, 계절성 성분 이외 불규칙 성분에 대한 발생 이유를 설명하려는 기법이다.

② 유추법, 델파이 기법 등은 정성적 수요예측 기법으로 신제품, 신시장 등 과거 수요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을 때 적합한 기법이다.

③ 예측오차의 측정지표로서 추적지표(tracking signal)는 수요의 상향 혹은 하향 변화에 따라 예측평균값이 편향없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④ 단순 지수평활법에서는 최근 기간의 예측 수요, 최근 기간의 실제 수요, 평활상수 등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다음 기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요예측 기법의 성격과 용도를 구분하고, 시계열분석법이 무엇을 하는 기법인지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계열분석법: 과거 수요의 수준, 추세, 계절성 같은 반복 패턴을 분석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정량적 기법이다. 결정 차이축: 원인 설명이 아니라 패턴의 연장 여부이다. 키워드: 수준·추세·계절성.
정성적 수요예측: 과거 수요자료가 부족할 때 전문가 판단이나 시장 정보로 수요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결정 차이축: 데이터 부족 상황에서의 판단이다. 키워드: 유추법·델파이.
추적지표: 예측오차가 한 방향으로 누적되는지를 점검해 예측의 편향 여부를 보는 지표이다. 결정 차이축: 절대 오차 크기보다 편향 탐지이다. 키워드: bias 점검.
단순 지수평활법: 직전 실제 수요와 직전 예측 수요를 평활상수로 가중평균해 다음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결정 차이축: 최근 정보 반영이다. 키워드: α, $F_{t+1} = \alpha A_t + (1-\alpha)F_t$.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시계열분석법은 과거 시계열 자료의 패턴을 이용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정량적 기법이다. 틀린 부분은 '불규칙 성분에 대한 발생 이유를 설명하려는'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불규칙 성분의 원인을 설명하는 기법이 아니라 수준, 추세, 계절성 같은 시간적 패턴을 파악해 미래 수요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② O: 유추법, 델파이 기법은 대표적인 정성적 수요예측 기법이다. 신제품이나 신시장처럼 과거 수요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전문가 판단과 유사 사례를 활용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O: 추적지표는 누적예측오차를 이용해 예측이 지속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로 치우치는지를 점검하는 지표이다. 수요의 상승이나 하락 국면에서 예측이 편향 없이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옳다.
④ O: 단순 지수평활법은 최근 기간의 예측 수요, 최근 기간의 실제 수요, 평활상수만 있으면 다음 기간 수요를 계산할 수 있다. 추세와 계절성이 없는 수요에 적합하며, 직전 정보로 다음 값을 갱신하는 방식이 맞다.

오답 포인트

시계열분석이 데이터를 수준, 추세, 계절성으로 나눈다는 말 때문에 원인까지 설명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원인 설명은 인과모형의 접근이고, 시계열분석의 핵심은 시간에 따른 패턴을 읽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예측 문항은 먼저 과거 자료가 충분한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지, 시간적 패턴을 연장하는지, 예측오차의 편향을 점검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선지에 '원인을 설명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시계열분석인지 인과형 설명인지부터 구분하면 오답을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시계열분석은 패턴 예측, 정성기법은 자료 부족 보완, 추적지표는 편향 점검, 단순 지수평활은 최근값 반영이다.

NoteBase

문 12. 정보시스템 통제 중 응용통제(application control)의 하위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력 통제

② 프로세스 통제

③ 구현 통제

④ 출력 통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응용통제의 기본 하위 유형인 입력통제·처리통제·출력통제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입력 통제: 잘못된 자료가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도록 입력 단계에서 정확성·완전성·승인 여부를 점검하는 통제이다. 결정 차이축: 입력 시점 / 키워드: 형식검사, 승인, 범위검사
처리 통제: 입력된 자료가 처리 과정에서 누락·중복·연산 오류 없이 처리되도록 확인하는 통제이다. 결정 차이축: 처리 단계 / 키워드: 계산검증, 중복방지, 처리오류 점검
출력 통제: 처리 결과가 정확한 대상에게 완전하게 전달되고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통제이다. 결정 차이축: 처리 후 결과 / 키워드: 보고서 배포, 접근권한, 출력물 관리

선지별 해설

① O
입력 통제는 자료 입력 단계에서 형식, 범위, 승인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응용통제이므로 옳다.
② O
프로세스 통제는 통상 처리 통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며, 처리 과정의 누락·중복·연산 오류를 막는 응용통제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구현 통제"이다.
구현 통제는 시스템 개발·도입·전환 단계의 통제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으나 응용통제의 기본 하위 유형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응용통제의 하위 유형으로 "처리 통제"가 들어간다.
④ O
출력 통제는 처리 결과의 배포, 열람 권한, 출력물의 완전성 등을 관리하는 응용통제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프로세스 통제"라는 표현이 낯설어서 ②를 틀린 선지로 보기 쉽지만, 실제 함정은 응용통제의 분류 축이 입력·처리·출력 단계라는 점이다. "구현"은 시스템 생애주기 단계와 연결되는 용어이므로 응용통제의 하위 유형과는 축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응용통제 문제는 각 선지가 입력 단계, 처리 단계, 출력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본다. 개발·도입·구현처럼 시스템 생애주기 용어가 나오면 응용통제의 정형적 하위 유형이 아닌지 의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응용통제는 입력-처리-출력의 3단계 통제이고, 구현은 개발 단계 용어이다.

NoteBase

문 13. 프로젝트 일정관리를 위한 PERT/CPM 방법론에서 주경로(critical pat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활동들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나타냈을 때, 시점 마디로부터 종점 마디에 이르기까지의 최장 경로를 말한다.

② 주경로를 구성하는 활동 중 여유시간이 있는 활동의 소요시간을 단축하면 프로젝트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조기시작시점(early start)과 만기시작시점(late start)간의 차이가 없는 활동들로 구성된다.

④ 주경로가 많이 존재할수록 프로젝트 일정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PERT/CPM에서 주경로의 정의와 여유시간, 그리고 일정 단축이 가능한 활동의 조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주경로는 프로젝트 네트워크에서 시작 마디부터 종점 마디까지 이어지는 경로 중 총 소요시간이 가장 긴 경로이다. 주경로를 이루는 활동은 총여유시간이 0이므로 이 활동이 늦어지면 전체 프로젝트 완료시점도 함께 늦어진다.

선지별 해설

1번 O: 주경로의 기본 정의를 옳게 설명한 선지이다. 프로젝트 네트워크에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여러 경로가 있을 때, 그중 총 기간이 가장 긴 경로가 주경로가 된다.
2번 X: 틀린 부분은 "주경로를 구성하는 활동 중 여유시간이 있는 활동"이라는 표현이다. 주경로상의 활동은 여유시간이 없어야 하므로, 여유시간이 있는 활동은 애초에 주경로 활동이 아니다.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려면 주경로상의 활동 중 실제로 기간 단축이 가능한 활동의 소요시간을 줄여야 한다.
3번 O: 조기시작시점과 만기시작시점의 차이는 여유시간을 뜻한다. 주경로 활동은 이 차이가 0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4번 O: 주경로가 여러 개라는 것은 동일한 최장경로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어느 한 경로만 지켜서는 안 되고 여러 경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므로 일정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든다.

오답 포인트

주경로와 여유시간의 관계를 반대로 기억하면 2번에 쉽게 속는다. 주경로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유시간이 0인 활동들의 연결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경로 관련 선지는 먼저 최장경로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경로의 활동들이 총여유시간 0인지 본다.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줄이는 조치가 주경로 활동의 기간 단축인지 확인하면 정답을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주경로는 최장경로이고, 주경로 활동은 여유시간 0이며, 전체 기간 단축은 주경로 활동 단축에서 나온다.

NoteBase

문 14. 품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질비용을 예방 · 평가 · 실패비용으로 구분할 때 예방 및 평가비용을 늘리더라도 실패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식스시그마의 공식적 문제해결 프로세스는 DAMCI로 정의 → 분석 → 측정 → 통제 → 개선의 순서로 진행된다.

③ p-관리도(p-chart)는 측정단위당 발생빈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며, 기초가 되는 표본분포는 포아송분포이다.

④ 관리도의 종류에서 R-관리도(R-chart)는 변량관리도이며, c-관리도(c-chart)는 속성관리도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품질비용의 구조, 식스시그마 DMAIC 절차, 관리도의 분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품질비용은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 미리 드는 비용과 불량이 발생해 나중에 치르는 비용을 예방비용·평가비용·실패비용으로 나눈 개념이다.
식스시그마의 DMAIC는 Define-Measure-Analyze-Improve-Control의 표준 개선 절차이다.
관리도는 연속 측정값을 다루는 변량관리도와 불량률·결점 수 같은 계수치를 다루는 속성관리도로 나뉘며, R-관리도는 변량관리도, p-관리도와 c-관리도는 속성관리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실패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예방비용과 평가비용을 적정하게 늘리면 불량, 재작업, 반품, A/S와 같은 실패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품질비용 관리의 기본 논리이다. 올바르게는 "예방 및 평가비용의 증가는 실패비용을 낮출 수 있다"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DAMCI"와 "정의→분석→측정→통제→개선"이다. 식스시그마의 공식적 문제해결 절차는 DMAIC이며 순서는 정의→측정→분석→개선→통제이다. 올바르게는 "DMAIC로 정의→측정→분석→개선→통제의 순서로 진행된다"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p-관리도는 측정단위당 발생빈도"와 "포아송분포"이다. p-관리도는 표본에서의 불량품 비율 또는 불량률을 관리하는 속성관리도이며 기초 분포는 이항분포이다. 측정단위당 결점 발생빈도는 u-관리도, 표본 내 결점 수는 c-관리도로 다룬다. 올바르게는 "p-관리도는 불량률을 관리하며 이항분포를 기초로 한다"이다.
4번 O: R-관리도는 표본의 범위(range)를 이용해 산포를 관리하는 변량관리도이고, c-관리도는 일정한 검사단위에서 결점 수를 관리하는 속성관리도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식스시그마 순서와 관리도 분류처럼 약어와 기호가 비슷한 개념을 서로 바꿔 놓는 방식이 대표적 함정이다. 특히 p-관리도를 결점 수 관리도처럼 보고 포아송분포와 연결하면 3번을 맞는 선지처럼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품질관리 문항은 먼저 비용 항목이 사전예방인지 사후실패인지, 절차 문항이면 DMAIC의 순서가 맞는지, 관리도 문항이면 연속측정값인지 불량률·결점 수인지의 자료형을 기준으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DMAIC는 정의-측정-분석-개선-통제이고, p는 불량률, c는 결점 수, R은 범위이다.

NoteBase

문 15. 재고관리에서 경제적주문량(EOQ)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회 주문비용이 증가하면 최적주문량도 증가하지만 재주문점은 변동하지 않는다.

② 제품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 증가하면 최적주문량은 증가하며 재주문점은 감소한다.

③ 재주문점은 리드타임의 기대수요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안전재고와는 관련이 없다.

④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주문량에 반비례하며, 연간 주문비용은 주문량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제적주문량과 재주문점의 결정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경제적주문량은 연간 총재고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으로 $Q^* = \sqrt{2DS/H}$이다.
재주문점은 재고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주문하는 기준점으로 리드타임 동안의 기대수요와 안전재고에 의해 정해지며 보통 $ROP = dL + SS$로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O. 1회 주문비용 S가 커지면 주문을 자주 할수록 불리해지므로 최적주문량 Q^*는 증가한다. 반면 재주문점은 리드타임 수요와 안전재고로 결정되므로 주문비용 변화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2번: X. 틀린 표현은 "재고유지비용이 증가하면 최적주문량은 증가하며"와 "재주문점은 감소한다"이다. 실제로는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H가 증가하면 Q^*는 감소하고, 재주문점은 유지비용이 아니라 리드타임 수요와 안전재고에 의해 결정되므로 바로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
3번: X. 틀린 표현은 "안전재고와는 관련이 없다"이다. 실제로 재주문점은 리드타임의 기대수요가 클수록 증가하고, 수요나 리드타임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재고가 있으면 그만큼 더 커진다.
4번: X. 틀린 표현은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주문량에 반비례"와 "연간 주문비용은 주문량에 선형적으로 비례"이다. 실제로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평균재고가 $Q/2$이므로 주문량에 비례해 증가하고, 연간 주문비용은 주문횟수 D/Q에 비례하므로 주문량이 커질수록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재주문점과 경제적주문량을 같은 식으로 떠올리면 틀리기 쉽다. 특히 3번처럼 재주문점에서 안전재고를 빼 버리거나, 4번처럼 주문비용과 유지비용의 방향을 서로 뒤집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OQ 문항은 먼저 무엇을 묻는지부터 나눈다. 주문량의 크기를 묻는지, 주문시점을 묻는지 구분한 뒤 주문량이면 주문비용과 유지비용의 상반관계를, 주문시점이면 리드타임 수요와 안전재고를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EOQ는 주문비용과 유지비용의 균형, 재주문점은 리드타임 수요와 안전재고의 합이다.

문 16. 한 제조기업은 정부 발주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세 가지 장비 구매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수주 여부에 따른 발생 확률과 각 대안별로 사업 수주 여부에 따른 기업의 성과(순이익)는 <보기 1>과 같다. <보기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A1이 최적 대안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매 대안 \ 수주 여부	수주 성공	수주 실패
A1	400	-10
A2	200	40
A3	120	100
발생 확률	0.4	0.6

<보기 2>

ㄱ. 최대 최대(maximax)

ㄴ. 최대 최소(maximin)

ㄷ. 최소 최대후회(minimax regret)

ㄹ. 기대가치(expected value) 최대화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과표를 바탕으로 maximax, maximin, minimax regret, expected value 기준을 각각 적용해 A1이 최적 대안이 되는 경우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수주 성공 확률 0.4, 수주 실패 확률 0.6과 각 대안의 성과표이다.
구해야 할 값은 각 의사결정 기준에서 A1이 최적 대안인지 여부이다.
주의할 조건은 최대최대는 각 행의 최댓값을, 최대최소는 각 행의 최솟값을, 최소최대후회는 상태별 최고 성과를 기준으로 한 후회값의 행별 최댓값을, 기대가치는 확률가중평균을 비교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maximax는 각 대안의 최대 성과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maximin은 각 대안의 최소 성과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minimax regret는 상태별 최고 성과에서 각 대안 성과를 뺀 후회값을 구한 뒤 각 대안의 최대 후회값을 비교하는 기준이다.
expected value는 Σ (확률 $\times$ 성과)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들을 쓰는 이유는 같은 성과표라도 낙관, 비관, 후회 최소화, 확률가중평균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으로 최적 대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최대최대 기준에서는 각 대안의 최댓값을 비교한다. A1은 400, A2는 200, A3는 120이므로 A1이 최적이다.
2. 최대최소 기준에서는 각 대안의 최솟값을 비교한다. A1은 -10, A2는 40, A3는 100이므로 A3가 최적이고 A1은 아니다.
3. 최소최대후회 기준에서는 상태별 최고 성과를 먼저 잡는다. 수주 성공의 최고 성과는 400, 수주 실패의 최고 성과는 100이다. 따라서 후회값은 A1이 (0, 110), A2가 (200, 60), A3가 (280, 0)이고, 각 대안의 최대 후회값은 A1이 110, A2가 200, A3가 280이므로 A1이 최적이다.
4. 기대가치는 A1이 $0.4 \times 400 + 0.6 \times (-10) = 154$, A2가 $0.4 \times 200 + 0.6 \times 40 = 104$, A3가 $0.4 \times 120 + 0.6 \times 100 = 108$이다. 가장 큰 값은 154이므로 A1이 최적이다.
따라서 A1이 최적 대안이 되는 경우는 ㄱ, ㄷ,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은 틀리다. 최대최소 기준은 각 대안의 최저 성과를 비교하므로 A1=-10, A2=40, A3=100이어서 A3가 최적이다.
- 틀린 표현은 "ㄱ, ㄴ"이고, 올바르게는 "ㄱ, ㄷ, ㄹ"이다.

② O
- ㄱ, ㄷ, ㄹ만 A1을 최적으로 만든다. 최대최대에서는 A1의 최대 성과 400이 가장 크고, 최소최대후회에서는 A1의 최대 후회값 110이 가장 작고, 기대가치도 A1=154로 가장 크다.

③ X
- ㄴ이 포함되어 틀리고 ㄱ이 빠져 있어 틀리다. 최대최소 기준에서는 A3가 최적이며, 최대최대 기준에서는 A1이 최적이다.
- 틀린 표현은 "ㄴ, ㄷ, ㄹ"이고, 올바르게는 "ㄱ, ㄷ, ㄹ"이다.

④ X
- ㄴ까지 포함해 네 기준 모두라고 본 점이 틀리다. 최대최소 기준만은 A1이 아니라 A3를 선택한다.
- 틀린 표현은 "ㄱ, ㄴ, ㄷ, ㄹ"이고, 올바르게는 "ㄱ,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maximax와 maximin을 같은 방향의 기준으로 혼동하면 ㄴ을 잘못 포함하게 된다. 또 minimax regret는 각 대안의 성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별 최고 성과를 기준으로 후회값을 다시 만든 뒤 그 최대값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과표 문제는 먼저 각 기준이 무엇을 비교하는지부터 분리해 본다. maximax는 행의 최댓값, maximin은 행의 최솟값, minimax regret는 상태별 최고값에서 뺀 후회값의 행별 최댓값, expected value는 확률가중평균을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maximax는 가장 좋은 경우, maximin은 가장 나쁜 경우, minimax regret는 최대 후회 최소, expected value는 확률가중평균이라는 대응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7.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op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콜옵션은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가치가 감소한다.

② 콜옵션은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증가한다.

③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가치가 증가한다.

④ 풋옵션은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옵션가치에 영향을 주는 기본 변수, 특히 행사가격·기초자산 가격·변동성과 콜옵션·풋옵션의 방향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콜옵션은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권리이므로 주가가 오르거나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해진다.
풋옵션은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팔 권리이므로 주가가 내릴수록 유리해진다.
변동성은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뜻하며,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제한되고 이익 가능성은 커지므로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가치가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이므로 행사가격이 높아질수록 그 권리의 매력은 떨어진다. 같은 주가라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하므로 콜옵션 가치는 감소한다.
② O: 콜옵션은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질수록 유리하다. 옵션은 하방손실이 프리미엄으로 제한되므로 변동성 증가는 콜옵션 가치를 높인다.
③ O: 풋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이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권리의 가치가 커진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감소한다"이다. 풋옵션도 변동성이 커질수록 유리한 가격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므로 가치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풋옵션의 방향을 주가 수준과 변동성 효과로 혼동하게 만든 선지이다.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가치가 커지지만, 변동성 효과는 콜과 풋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놓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옵션 문제는 먼저 권리의 방향을 본다. 콜은 "살 권리", 풋은 "팔 권리"로 정리한 뒤, 주가·행사가격은 콜과 풋에서 반대 방향으로, 변동성은 둘 다 가치 증가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콜은 주가 상승에 강하고 풋은 주가 하락에 강하며, 변동성 증가는 콜·풋 모두 가치 증가이다.

문 18.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분석방법에는 분류법과 요소비교법 등이 있다.

② 직무평가방법에는 점수법과 서열법 등이 있다.

③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요건과 관련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서술한다.

④ 핵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핵심 직무차원은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과업효율성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방법,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구분, 직무특성이론의 핵심 차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무분석은 직무의 내용, 과업, 책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다.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임금체계의 기준을 정하는 활동이다.
직무기술서는 직무 자체의 내용, 책임, 작업조건을 적는 문서이다.
직무명세서는 직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자격요건을 적는 문서이다.
해크만과 올드햄의 핵심 직무차원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분류법과 요소비교법은 직무평가 방법이다. 틀린 표현은 '직무분석방법'이다. 올바르게는 '직무평가방법에는 분류법과 요소비교법 등이 있다'이다.
② O: 점수법과 서열법은 대표적인 직무평가 방법이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직무기술서'이다.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요건과 지식, 기술, 능력은 직무명세서에 적는다. 직무기술서는 직무 내용, 책임, 작업조건 등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과업효율성'이다. 해크만과 올드햄의 핵심 직무차원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다. 올바르게는 과업효율성이 아니라 기술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방법을 서로 뒤바꾸고,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바꿔 묻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④는 실제 용어처럼 보이는 '과업효율성'을 넣어 직무특성이론의 정확한 차원 암기를 흔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무의 내용과 책임을 파악하면 직무분석이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면 직무평가이다. 문서가 직무 자체를 설명하면 직무기술서이고, 수행자 요건을 설명하면 직무명세서이다.

암기 포인트

직무기술서는 일, 직무명세서는 사람, 직무평가는 가치, 직무특성 5차원에는 과업효율성이 없다.

NoteBase

문 19. 자본시장 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무관하게 자산 자체 고유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
②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
③ 이자율위험(interest rate risk)
④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 전체 요인에 좌우되는 체계적 위험과 기업·자산 고유 요인에 좌우되는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 수익률 변동처럼 분산투자로 제거되지 않는 공통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이나 자산의 고유 요인에서 생겨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이다.
채무불이행위험은 개별 발행자의 상환능력 악화에서 생기는 구체적 위험이고, 이자율위험은 금리 변동이라는 시장 요인에서 생기는 위험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체계적 위험은 자본시장 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함께 움직이는 시장 위험이다. 틀린 표현은 "자산 자체 고유 요인"에 대응시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시장 전체 요인의 영향을 받는 위험이다.
2번 X: 채무불이행위험은 발행기업의 상환불능 가능성을 뜻하는 개별 신용위험이다. 문제는 특정 사례가 아니라 자산 고유 요인으로 움직이는 위험의 일반 범주를 묻고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야 한다.
3번 X: 이자율위험은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하는 위험으로,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와 연결된다. 틀린 표현은 이를 자산 고유 요인 위험으로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체계적 위험의 대표적 예이다.
4번 O: 비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와 무관하게 개별 기업의 경영, 재무, 노사, 제품 경쟁력 같은 고유 요인으로 변동하는 위험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개별 위험의 구체적 예시와 상위 개념을 혼동하면 2번으로 흔들릴 수 있다. 이 문항은 채무불이행위험이라는 사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산 고유 요인으로 설명되는 위험의 분류명을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시장 전체, 금리, 경기처럼 공통 요인이 보이면 체계적 위험으로 본다. 문장에 기업 고유 사정, 특정 자산, 개별 발행자 문제가 보이면 비체계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 전체는 체계적 위험, 기업 고유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NoteBase

문 20.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투자안으로부터 얻게 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투자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②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

③ 한 가지 투자안에서 복수의 값이 얻어질 수도 있다.

④ 상호배타적인 투자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순현재가치 방법과 항상 동일한 결론을 가져다 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부수익률의 정의와 한계, 그리고 순현재가치 및 수익성지수와의 차이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고, 수익성지수는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초기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비정상적 현금흐름처럼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면 한 투자안에서도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나타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 설명은 내부수익률이 아니라 수익성지수에 가깝다. 틀린 부분은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투자액으로 나누어 구한다"는 표현이다. 내부수익률은 비율 계산식이 아니라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구한다.
② X. 이 설명은 내부수익률이 아니라 순현재가치의 정의이다. 틀린 부분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그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이다.
③ O. 비정상적 현금흐름처럼 투자기간 중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면 내부수익률 방정식의 해가 둘 이상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투자안에서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얻어질 수도 있다.
④ X.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는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의 우선순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항상 동일한 결론"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투자규모나 현금흐름 시점이 다르면 두 방법의 결론이 충돌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내부수익률과 수익성지수를 섞어 놓은 선지이고, ②는 내부수익률과 순현재가치를 바꿔 놓은 선지이다. ④는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도 IRR과 NPV가 늘 같은 결론을 준다고 단정하게 만들어 자주 나오는 함정을 건드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RR이 보이면 먼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인지 확인한다. 어떤 선지가 값 자체를 설명하면 NPV, 나누는 비율을 설명하면 수익성지수일 가능성이 크다. 또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 "항상 일치"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외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판단이 맞다.

암기 포인트

IRR은 0이 되는 할인율, NPV는 현재가치의 차이, PI는 나눈 비율이다.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는 IRR과 NPV가 충돌할 수 있다.

NoteBase